

아무도 몰랐던 미래발명이야기

누구나 상처가 나게 되면 참은 물감이 있어서 그런 바로 '대스밴드'



우리에게만 밴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대스밴드'는 정확히 말해서 일회용 밴드라는 이름이다.



이 일회용 밴드는 현재에 이르는 없었던 상처 응급처방용으로 가이저가아 없는 집어 넣을 정도이다.

작은 구멍은 흡수 땀기 상처에 공기가 드나들도록 배려했고, 상처의 완치율을 흡수하도록 붙여 놓은 거즈 조각.



이 일회용 반창고의 탄생은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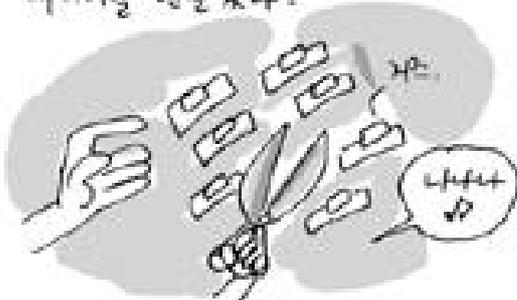
얼얼스의 생활생활은 습소습고 행복했다. 다만 그의 아내가 실수가 잦아 다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일손은 최후의 날 외과 치료용 테이프와 거즈를 이용하여 작은 조각을 만들어 아내의 손에 붙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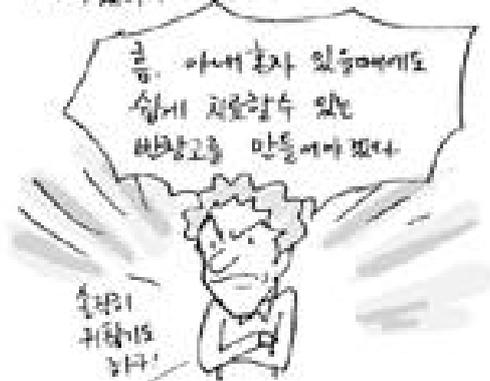
당시 일손은 '준손 앤드 존손'시에 다니고 있었기에 반창고를 사용하는데 능숙했다. 그는 작은 조각의 외과용 테이프로 거즈를 붙여 여자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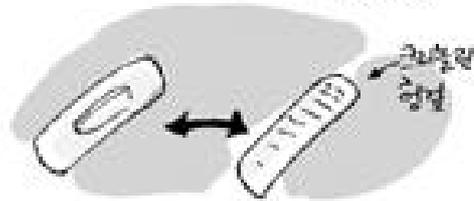
결과를 대 성공이었다!! 아내도 무척 만족해 했다.



그 이후에 일손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과용 테이프의 끈적끈적한 부분을 오랜연구 끝에 크리올린이란 물질로 붙여 오래 보관 할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일손의 알힘은 반창고는 '밴드에이드'라는 이름을 상품화 되어 전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행운도 가져온 것이었다.

